

린하이인(林海音)의 『城南舊事』 연구*

金水珍**
(성신여자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상하이에는 장아이링의 것이고, 베이징은 린하이인의 것(上海是張愛玲的, 北京是林海音的)’이라고 한 타이완 시인 위광중(余光中)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린하이인(林海音)이라는 작가의 위상을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린하이인(1918-2001)은 1918년 일본 大阪 絹笠町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은 타이완 苗栗頭份 출신, 모친은 타이완 板橋 출신이다. 린하이인은 부모를 따라 타이완으로 돌아와 頭份 및 板橋에서 거주하다가 베이징으로 건너갔으며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와 생을 마쳤다.¹⁾ 타이완 태생인 린하이인은 유년 시절을 베이징에서 보내며 성장하였으며 베이징에서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린하이인에게 있어서 베이징은 이후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시발점이기도 하다.

린하이인의 원명은 林舍英으로 어린 시절 불리던 이름은 ‘잉쯔 英子’이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誠信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1) 「林海音大事年表」, 舒乙, 傅光明 主編, 『林海音研究論文集』, 北京: 臺海出版社, 2001, 282쪽.

다. 소설집 『城南舊事』 속의 어린 여주인공의 이름 역시 ‘英子’이다. 필명으로 쓰이는 林海音에서 ‘海音’, 이 두 글자는 ‘舍英’의諧音이라는 견해도 있고 린하이인이 師大도서관에서 일할 때 『海潮音』이라는 제목의 전집 세트를 보고 이 이름에 흥미를 느껴서 그 가운데 ‘海音’이라는 두 글자를 필명으로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 필명은 英子 즉 린하이인이 성장한 후에 기자와 작가로서 사용한 이름이다.²⁾

린하이인의 작품으로는 산문집 『窓』, 『兩地』, 『做客美國』, 『藝窓夜讀』, 『剪影話文壇』, 『一家之主』, 『家住書坊邊』이 있으며 산문소설합집으로는 『冬青樹』, 단편소설집으로는 『燭心』, 『婚姻的故事』, 『城南舊事』, 『綠藻與咸蛋』, 장편소설로는 『春風』, 『曉雲』, 『孟珠的旅程』이 있고, TV각본집으로는 『薇薇的周記』, 그리고 『林海音自選集』, 『林海音童話集』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竊讀記』, 『冬陽·童年·駱駝隊』, 『爸爸的花兒落了』는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린하이인은 작품성과 지명도가 높은 중국의 대표적인 여류작가임에도 불구하고 『城南舊事』가 『북경이야기』(방철환 역, 베들북 출판사, 2001)라는 제목의 동화집으로 출판된 것 외에는 관련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에서 다룬 소설집 『城南舊事』는 1960년 린하이인이 42세의 나이로 출판하였으며 대륙 뿐 아니라 타이완에서도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집이다.

『城南舊事』는 린하이인이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집으로 첫 출판 이후 10여쇄가 발간되었다. 특히 이 작품집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화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를 계기로 80년대 중반 전후로 ‘린하이인 열풍’이 불기도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자전체 소설 『城南舊事』는 2001년 중국 青年出版社에서 새로 발행한 저명한 화가 관웨이싱 關維興이 삽화를 그린 아동용 그림책, 이듬해에는 浙江文藝出版社, 經濟日報出版社, 當代中國出版社에서 차례로 출판한 다양한 종류의 삽화를 삽입한 책과 기념집들이 나왔다. 린하이인의 대표소설집인 『城南

2) 夏祖麗, 『從城南走來-林海音傳』,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北京: 2003. 85쪽 참고.

『城南舊事』는 여러 해 동안 독자들의 옛 베이징 노스텔지어에 대한 욕구 충족의 의미로서 끊임없이 소비되어졌다. 이러한 영향과 봄을 타고 2006년에는 十月文藝出版社에서 출판한 작가 수푸싱 蕭復興의 『藍調城南』이 나오게 된다. 이 작품은 사실주의 기법으로 수십 곳의 추억 속 城南의 가게들, 후통 胡同과 역사적 명승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린하이인의 『城南舊事』의 영향을 깊이 받은 작품이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城南 즉 베이징성 남쪽 지역은, 일찍이 옛 베이징성 상업문화 오락의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품의 주요 배경이자 린하이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던 椿樹胡同, 新簾子胡同, 虎坊橋, 梁家園 등은 베이징성 남쪽에 위치해 있다. 城南을 중심으로 인문지리학적, 미시적인 옛 베이징 서사를 담은 저서들은 린하이인 이후 후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게 된다.³⁾

『城南舊事』 소설집은 20세기 중문소설 100강에 오르는 저력을 보인 작품집으로 이미 널리 공인된 문학 경전이다. 여기에 실려 있는 단편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실존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실제 현실과 가공의 사실이 분리하기 힘들 만큼 교묘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20세기말 베이징의 전통 가옥인 사합원에 사는 평범한 일가의 생활을 담고 있는 『城南舊事』는 「惠安館」, 「我們看海去」, 「蘭姨娘」, 「驢打滾兒」, 「爸爸的花兒落了」 이렇게 총 다섯 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1983년 상하이 감독 우이궁 吳貽弓은 『城南舊事』를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 『城南舊事』가 ‘산문영화’의 물꼬를 트면서, 이후 이런 형식의 산문식 영화를 찍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 당시 문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칭 江青의 8개의 모범극⁴⁾에 사람들이 진저리를 칠 무렵 옛 베이징의 풍경을 담고 옛 중국인들의 순박한 인성을 묘사한 영화 『城南舊事』는 중국 전체를

3) 陣大為, 「京畿攻略-中國當代詩歌版圖上的北京」 『思與言』第45卷 第1期, 臺北: 2007, 95쪽 참조.

4) 문혁시기 8대 모범극(樣板戲)으로는 경극 『紅燈記』, 『沙家濱』, 『智取威虎山』, 『奇襲白虎團』, 『海港』, 발레무용극 『白毛女』, 『紅色娘子軍』, 교향음악 『沙家濱』이 있다.

뒤흔들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향수에 젖어 옛 시절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보니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날을 보냈었지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게 되었다.⁵⁾

1992년에는 홍콩 중문대학에서 殷張蘭熙(Nancy Ing)와 치방웬 齊邦媛의 공동번역으로 『城南舊事』의 영문판 『Memories of Peking, South Side Story』을 출판했다. 2000년 10월에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 베이징 중국현대문학관에서 『城南舊事』가 출판된 지 40년 만에 ‘林海音作品研討會’를 개최하기도 했다.

치방웬은 『城南舊事』序에서 『城南舊事』가 타이완에서 대륙으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반향을 일으킨 이유를 ‘린하이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은 안정되고 정상적이며 정치 제일이 아닌 사회심리이다. …… 책을 덮을 때 짝엔 독자들이여 보라!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박한 사실이다. 폭행, 죄악과 더러움이 문학의 편폭을 가득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보존해야 할 많은 것들을 구원했다’⁶⁾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는 린하이인 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 나는 내내 작가 영혼 속의 어린 시절에 침잠했고 또한 내내 나 자신의 영혼 속 어린 시절에 침잠했다. …… 요일년 사이에 나는 깨어난 상태인 듯, 또 꿈속에 있는 듯, 아득하고도 또렷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오색이 영롱하고 어렴풋하면서도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 이렇게 해서 나는 소설 『城南舊事』를 스크린에 올렸다. ……

5) 이 영화는 중국 전역 뿐 아니라 전세계 47개국에서 상영되었으며, 1983년 제2회 마닐라 국제영화제 최우수 영화 金鷹상을, 1984년에는 제7회 독일 아동영화제 최우수영화상, 1988년에는 에콰도르 영화제 최우수영화상을 받았다. 1983년 제3회 중국영화 金鷄상 최우수 음악작곡상, 최우수 감독상, 극중에서 宋媽 역을 연기한 鄭振瑤는 최우수 여자조연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1984년 홍콩 10대 중 국어영화상, 중국대륙의 『文匯報』와 『中國電影時報』가 합동으로 연 ‘문학’ 이후 가장 인기있는 신 시기10년 영화상, 감독영예상을 받는 등 각종 상들을 휩쓸었다. (夏祖麗, 앞의 책, 221쪽 참고)

6) 傅光明, 『林海音: 城南依稀夢尋』, 鄭州: 大象出版社, 2002, 9쪽; 齊邦媛, 「超越悲歡的童年」, 『城南舊事』序, 夏祖麗, 앞의 책, 233쪽 참고.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랄 뿐이다. 소설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던 그런 순진하고, 소박하고, 함축적이면서도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유하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다.”⁷⁾

영화 『城南舊事』 촬영을 마치고 우이궁 감독은 「童年的夢—我和‘城南舊事’」라는 글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심경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원전이 갖는 의미도 함께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城南舊事』를 중심으로 린하이인이 5·4 문학의 정신을 계승하여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서사와 삶을 바라보는 작가적 태도와 방식을 살피고, 아울러 타이완과 대륙의 기억을 공유한 린하이인의 ‘兩岸 콤플렉스’와 문학사적 좌표를 짚어봄으로써 린하이인 문학이 갖는 의미를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II. 5·4 전통의 계승: 아동과 여성 - 삶을 성찰하는 깊은 울림

1918년 5·4전야에 태어난 린하이인의 삶과 문학은 시기적인 이유만으로도 5·4시기를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5·4시기 활동했던 여성소설 작가로는 빙신 氷心, 루인 廬隱, 수웨린 蘇雪林, 링수화 凌叔華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린하이인 역시 5·4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신만의 개성으로 창작의 꽃을 만개시켰다. 신·구 전통의 과도기적 시기를 보낸 린하이인의 경험은 고스란히 문학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5·4시기는 ‘인간의 발견’이라는 맥락에서 여성의 자아각성과 아동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아동문학’이라는 명칭 역시 이 시기 비로

7) ……我一直沉浸在作者心靈中的童年裏，也一直沉浸在自己心靈中的童年裏……這一年來，我像是醒著，又像在夢裏，我聽見了一聲聲遙遠又清晰的呼喚，我看見了五光十色、朦朧而又耀眼的斑斕……就這樣，我把小說『城南舊事』搬上了銀幕。……但願它能給人們帶來美的享受，就像小說曾給人們帶來過的那種純真、質樸、含蓄而雋永的美的享受一樣。(夏祖麗, 앞의 책, 225-226쪽 참고)

소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남성 작가들뿐 아니라 여성작가들 역시 그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풍경 속 인물들인 여성과 아동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에 열정을 쏟았는데, 이들 가운데 린하이인은 꾸준한 창작활동을 통해 동일 주제 속에서도 그녀만의 독특한 작품 분위기를 구축해나갔다.

그녀 자신이 존경하는 여성 선배작가라고 밝힌 링수화 凌叔華는 영국의 여성 작가 버지니아 울프와 서신왕래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것들을 창작하고 계속 써내려가라, 자유롭게 창작하라’는 격려를 받은 적이 있었다. 린하이인 또한 이 말의 의미에 깊이 동감하였으며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생활, 집, 가구 등 생활 속의 작은 풍경을 세밀하게 쓸수록 좋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⁸⁾ 때문에, 린하이인이 작품 속에서 빚어낸 아동과 여성 서사의 공간 속에는 평범한 주변 인물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생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소소한 일상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城南舊事』는 주인공인 어린 소녀 잉쯔의 7세부터 13세까지의 성장을 따라 이야기의 열개를 엮어나가고 있다.

1. 아동, 심리적 거리감과 미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城南舊事』는 5개 단원으로 구성된 소설로 한편 한편이 독립된 이야기이면서도 합치면 시간의 흐름과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한 편의 장편소설이다. 린하이인은 제한적 서사의 관점으로 특히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하여 어린아이의 맑은 눈으로 성장과정에서 체험한 사연들을 섬세하게 글로 풀어내었다. 『城南舊事』이야기 속의 모든 인물, 사건, 사물들은 모두 이야기 속 주인공인 잉쯔의 의식과 ‘동심’⁹⁾의 세계를 통해 드러나며 서사관점은 시종일관 잉쯔에게서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城南舊事』는 아동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아동을 脫俗의 존재로 신성시한다는 것, 이것은 아동을 낭만적으로 미화하

8) 夏祖麗, 앞의 책, 206쪽 참고.

9) 아동문학으로서의 전제조건이라 부를 수 있는 동심은 단순히 ‘어린이 마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 나가야 할 보편적 진실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은 세상을 오래 산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더 많다는 점에서 어린이 마음을 ‘동심’이라고 일컫는다. (김지연, 『아동문학의 이해와 창작의 실제』, 서울: 청동거울, 2003, 28-29쪽)

는 메커니즘과 거의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어리다는 것’ 그리고 ‘미적인 것’이 탈속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될 가능성은 농후하게 된다. 『城南舊事』 속의 ‘어린’ 잉쯔의 모든 행위는 추악함을 감춘 현실 속에서 독자들에게는 유일하게 ‘미적인’ 대상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는 생의 얼룩이라고는 묻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아동 즉 어린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구원하고 미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타락한 세상과 성인들에 대한 ‘구원자’의 위치에 들 수 있으므로 이에 어린이의 童心 역시 그 자체로 세상을 미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린하이인은 여성과 아동을, 특히 ‘세상을 구원하고 미화시킬 구원자’로서의 아동을 묘사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를 좋아하여 아동의 시선으로 세계를 관조하며 동심을 담은 필치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 『城南舊事』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인 어른들에 관한 것이다. 등장하는 어른들이 주로 성인들이고, 그들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은연중에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城南舊事』의 함의를 한 마디로 귀결하자면 이 소설이 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떠남의 미학’이다. 잉쯔 주변의 모든 인물들, 특히 가까운 사이인 성인인 어른들이 하나 둘 그녀 곁을 떠나면서 잉쯔는 어린 시절을 마감한다.¹¹⁾

이 작품집이 자전체 소설이냐는 질문에 대해 린하이인은 자신에게 이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묻지 말길 바라며, 그저 독자들과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는 심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창작을 하게 되었다고 창작동기를 밝힌 바 있다. 이는 『城南舊事』가 작가의 자전적 내용을 바탕으로 허구적 상상력이 더해진 소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손님 맞기를 좋아하던 우리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혁명
의 격류에 뛰어들든 학생이 우리 집에 피신해 있다가 결국 나이 많은 사내의

10)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9, 107쪽 참고.

11) 「城南舊事·代序」, 舒乙, 傅光明 主編, 앞의 책, 186쪽.

칩 살이를 하다 우리 집으로 도망 나온 여인과 연인 사이가 되어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길을 나선다. 나는 이 내용을 『蘭姨娘』에 썼으며 『城南舊事』에 실었다.¹²⁾

「蘭姨娘」에서 란이낭 蘭姨娘으로 나오는 여성은 젊은 나이에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화류계에 팔려가 떠돌다가, 돈 많은 63세 노인의 첩으로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하지만 편안한 생활은커녕 본처와 가족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핍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뛰쳐나오기를 불쌍하게 여긴 잉쓰네 식구들은 그녀를 집에 들이고 잉쓰와도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러는 사이 잉쓰의 부친이 그녀에게 연민이 섞인 애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자 집안에는 그 여인과 잉쓰의 모친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그 사이 혁명운동을 하다가 잠시 잉쓰네 집으로 피신해 있던 베이징대 대학생 더셴 德先 아저씨가 란이낭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말 부분에서는 결국 잉쓰네 집을 함께 떠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후반부의 반전은 이러한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챌 리 없을 것만 같았던 천진한 잉쓰의 갑작한 중매쟁이 역할이다. 모친의 슬픔과 불안을 감지한 잉쓰는 란이낭와 더셴 아저씨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이들을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부친과 내색조차 못하며 불안을 안으로만 삭히는 모친 사이에서, 그리고 구시대의 유물인 첩과 개화된 의식의 지식 청년이라는 맺어질 가능성이란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 사이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미화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천진난만하게 담당하고 있다.

「惠安館」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비극적 결말이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열린 결말로도 읽을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이 미친 여자로 부르며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슈전 秀貞이라는 여성을 바라보는 잉쓰의 시선은 어떤 편견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12) ……好客的我們家裏，出入各色人等，投入革命洪流的學生，在我們家躲風聲，結果和一位世伯的姨太太(逃到我們家來)攜手做革命情侶，奔向光明的前途了，我是以此寫成『蘭姨娘』，收在『城南舊事』裏。(林海音，「我的寫作歷程」，舒乙，傅光明 主編，앞의 책，279쪽)

마음이 통하는 친구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기만 하다.

그녀는 짧은 솜저고리 안에 있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나도 따스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웠다. 이때 골목을 살펴보니 지나가는 사람 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정말 이상하게도,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 미친 여자가 아니었다…….13)

하지만, 평범하고 순박한 처녀 슈전과 타지에서 온 젊은 청년 사이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뉴얼 姪兒을 연결해주는 잉쯔의 진정성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오히려 참혹한 비극을 맞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는 문득 몇 가지 일들이 떠올랐다. 나와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일이다. …… 지금 나는 너무나도 그녀들이 그립다! 너무도 괴로워서 정말 울고 싶어졌다. 나는 몸을 획 돌려 베게머리에 엎드려 영영 큰 소리로 울고 말았다.14)

어른들은 잉쯔에게 서쪽 곁채의 병아리, 뉴얼의 보조개, 벽 위의 아기 그림, 빗속에서 달리던 일 등 문득문득 뇌리를 스치는 과거의 정겨운 풍경들을 아픈 현실 때문에 기억 속에서 말끔히 지워낼 것을 중용한다. 잉쯔 역시 이제는 눈을 가리던 자신의 손을 떼어내고 다가올 미래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리라는 다짐을 한다.

「我們看海去」는 잉쯔가 공을 줍기 위해 집앞 공터 풀밭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세가 잘 나가지도 않는 이웃 빈집 앞의 잡초만 무성한 공터에서, 어느날 잉쯔는

13) 她揣在短棉襖裏的手伸出來拉住我的手, 那麼暖, 那麼軟. 我這時看看胡同裏, 沒有一個人走過. 真奇怪, 我現在怕的不是瘋子……. (林海音, 『惠安館』, 『城南舊事』,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9쪽)

14) 我忽然想起好些事情來了, 我跟一個人, 還有一個人的事情, …… 現在我是多麼的思念她們! 我心裏太難受, 真想哭, 我忽然翻身伏在枕頭上, 就忍不住大聲地哭起來. (林海音, 『惠安館』, 앞의 책, 76쪽)

한 사내를 만나고 근처 풀숲 사이에 놓인 구리 쟁반 밑에서 아름다운 술이 달린 식탁보와 비단옷을 맨 처음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곳에서 잃어버린 공을 찾아주는 아저씨를 만난 이후 비밀 아지트인양 남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가끔씩 이곳에서 몰래 접선하듯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 사람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간편한 차림에다 민머리에 눈썹이 진하고 입술이 두툼하였는데, 전에 관상을 볼 줄 알던 리씨 아저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입술이 두툼한 사람은 착실한 관상이란단.”¹⁵⁾

여덟 살의 창디엔 부속 초등학교 1학년생인 잉쯔는 평범한 옷차림에 ‘입술이 두툼한 사람은 착실한 관상’라는 리씨 아저씨의 말 그대로 우연히 만난 아저씨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는다. 본인은 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지만 일등을 하는 동생에게 학비를 대주고 유학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한 생각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잉쯔는 더욱 자신의 생각을 굳힌다.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못난 나 때문에 우시다가 눈이 멀었다. 어머니 지금 내가 개과천선해 집안 가재도구를 팔아 그 돈으로 조그만 장사라도 하는 줄 아시지, 내가 다른 일 하는 줄은 모르신단다. 오로지 책밖에 모르는 내 동생은 날 좋은 형으로 여기지. 왜 아니겠어, 내가 학비를 대는데 말이야. 지금 난 동생이 유학갈 수 있게 뒷바라지해줄 생각뿐이란단다. 그러니 난 좋은 사람 아닌가요? 꼬마 잉쯔야, 네 생각엔 내가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응?”¹⁶⁾

여덟 살 잉쯔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다.

-
- 15) 他是穿着一身短打褲褂，禿着頭，濃濃的眉毛，他的厚嘴脣使我想起了會看相的李伯伯說過的話：“嘴脣厚厚敦敦的，是個老實人相。”(林海音，『我們看海去』，『城南舊事』，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2008，91-92쪽)
- 16) 我那瞎老娘是爲了我沒出息哭瞎的，她現在就知道我把家當花光了，改邪歸正做小買賣，他不知道我別的。我那一心啃書本的弟弟，更拿我當個好哥哥。可不是，我供弟弟念書，一心要供到讓他飄洋過海去念書，我不是個好人嗎？小英子，你說我是好人？壞人？嗯？(林海音，『我們看海去』，104쪽)

“난 무슨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씨는 바다하고 하늘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¹⁷⁾

“어떤 어린 계집애가 길을 가르쳐 줘서 겨우 사건을 해결한 거래 ……” 나는 엄마에게 기대서 실컷 울고 싶었다.¹⁸⁾

잉쯔는 ‘착한’ 아버지께서 도둑질을 해서 공터에 숨겨놓은 장물 가운데 구리로 만든 불상을 찾아내서는 우연히 사복형사에게 건네주었다가, 의도하지 않게 이 ‘착한’ 아버씨는 형사에게 잡혀가는 신세가 된다. 줌도둑에 불과한 이 사내를 바라보는 잉쯔의 시각에서 차오푸쥘 曹普軍은 ‘이 천진무구한 어린이는 세상에 분분한 ‘是’와 ‘非’, ‘좋고’ ‘나쁨’, 이로부터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를 지니고 있다.’¹⁹⁾고 평가한다. 정해진 가치판단에 얽매여있는 현실을 벗어나 이러한 현실을 차단한 진공의 상태에서 잉쯔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원중찬의 표현을 빌리자면, 즉 어린이를 현실의 때가 덜 묻은 ‘작은 인간’(in degree)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별종’(in kind)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린 잉쯔를 통해 현실의 시시비비를 벗어나려는 작가의 낭만적 충동에 기인한 것인 동시에 현실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어른의 도피심리²⁰⁾로도 읽을 수 있겠다.

그가 도둑이므로 나쁜 사람으로 단정지을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한 희생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야할지 작가는 잉쯔의 입을 통해 내내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 서술자 역시 분명하게 독자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
- 17) “我不懂甚麼好人, 壞人, 人太多了, 很難分。”我擡頭看看天, 忽然想起來了, “你分得清海跟天嗎? (林海音, 『我們看海去』, 앞의 책, 104쪽)
- 18) “說是一個小姑娘給點引的路才破了案……”我慢慢躲進大門裏, 依在媽媽的身邊, 很想哭。(林海音, 『我們看海去』, 앞의 책, 115-116쪽)
- 19) 曹普軍, 「光明的故事-林海音『城南舊事』解讀」, 『世界華文文學論壇』, 2000. 3, 47쪽.
- 20) 원중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서울: 창비, 2009, 17쪽 참고.

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아는 정도는 잉쯔가 아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어서 잉쯔가 모르는 것은 독자 역시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경험이 없는 잉쯔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그녀의 관찰은 진실하여 진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린하이인의 특수한 서술 관점이기도 하다.²¹⁾

「驢打滾兒」는 잉쯔네 집에 유모로 들어온 가난한 농촌 여인 송마 宋媽의 굴곡진 사연이 주요 내용이다. 송마는 가난한 농촌 살림을 감당할 길이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엄마의 손길이 아직 절실한 자신의 피붙이들을 눈물을 머금고 고향에 떼어놓고 와서는, 뜨거운 모성애로 잉쯔네 아이들을 친자식 돌보듯 하는 헌신적인 생활을 한다. 하지만 결국 그녀 자신의 자녀들을 가난으로 인해 모두 잃게 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는다. 그녀는 평생 짊어져야 할 아픔을 간직한 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잉쯔네 아이들을 염려하며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송마의 가련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는 잉쯔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송마는 생활력과는 거리가 먼 모친과는 다른 의미의 삶의 영원한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잉쯔 즉 작가 린하이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함께 늘 떠올려지는 이미지로 자리잡아, 어린 시절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爸爸的花兒落了」에서는 자녀교육에는 엄격했지만 누구보다도 따스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아버지를 추억하고 있다.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잉쯔는 어린 시절을 일찍 마감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1930년 베이징은 베이핑으로 이름이 바뀌고 북벌이 완성되어 난징으로 수도를 옮겼고 베이징은 皇都로서의 오랜 역할을 마감한다. 당시 잉쯔의 막내 삼촌인 린빙윈 林炳文은 잉쯔의 부친인 큰형에게는 비밀로 하고 몰래 몇몇 조선인들과 항일공작을 수년째 해오고 있었다. 조선인들과 항일투쟁을 하며 한번은 린빙윈이 돈을 전달하러 南滿鐵路로 갔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다소 충동적이었던 린빙윈이 대련으로 갔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 결국 감옥에서 독살되었다. 당시 나이가 겨우 스물 다섯이었다. 잉쯔의 아

21) 汪淑珍, 「林海音小說中敘事觀點探討」, 舒乙, 傅光明 主編, 앞의 책, 138쪽.

버지 린환원 林煥文이 대련으로 시신을 수습하러 갔고 돌아와 그 충격으로 폐병이 재발해서 각혈이 끊이지 않았다.²²⁾ 결국 이 일이 원인이 되어 린하이인의 부친은 44세의 나이로 1931년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우리 집에선 내가 맏딸이다. 나는 작은 어른인거다. …… 이제껏 이렇게 침착해 본 적도, 이렇게 조용해 본 적이 없었다. …… 정원을 지나다가 가지가 늘어진 협죽도를 보면서, 나는 소리 없이 되새겼다. 아버지의 꽃이 떨어졌다. 나는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²³⁾

아버지가 병환중이라 혼자 졸업식에 다녀온 잉쯔는 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하며 임종을 맞기 위해 병원으로 급히 가야 했다. 서둘러 인력거를 타고 정원을 지나는 잉쯔의 시선에,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아버지가 돌보던 협죽도의 시들어 늘어진 가지가 들어온다. 정원 가득 아버지가 키우던 협죽도, 옥잠화, 석류, 민들레 등의 만개한 꽃들은 아버지와 추억, 인생에 있어 가장 눈부시던 어린 시절의 상징인 셈이다. 이제는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져버린 꽃의 시들은, 앞으로 이어질 아버지의 영원한 부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작가의 방식이다. 잉쯔는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대신 남은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다 잡고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어린 시절과 스스로 작별을 고하고 담담히 성인의 세계로 이른 발걸음을 내딛는다.²⁴⁾

『城南舊事』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동심을 담고 있다. ‘발견된 아동’, ‘풍경으로서의 아동’이라는 주제가 가라타니 고진에 의해 인상적으로 논의된 바 있듯이, 아동을 ‘풍경’으로 바라보고 ‘과거’를 향수하는 주체의 내면과 아동의 미적 표상은 연관이 깊다. ‘저편에 있는 자연’은

22) 夏祖麗, 앞의 책, 35쪽 참고.

23) 是的, 這裏就數我大了, 我是小小的大人. …… 我從來沒有過這樣的鎮定, 這樣的安靜. …… 走過院子, 看到那垂落的夾竹桃, 我默念着: “爸爸的花兒落了, 我也不再是小孩子.(林海音, 『爸爸的花兒落了』, 『城南舊事』,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177쪽)

24) 저우리는 『爸爸的花兒落了』편을 아버지를 기리는 輓歌이자 더욱이 어른으로의 성장을 찬미하는 讚歌로 평가한 바 있다. (周莉, 「在離別中成長-再讀『城南舊事』」, 『世界華文文學論壇』 2009. 3, 34쪽)

‘이편에 있는 주체’와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감 때문에 미화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의 동심과 어린 잉쓰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한 바로 이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작품과 작가의 기억 속에서 미화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은 성인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애뜻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²⁵⁾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미화 속에서, 보편적이며 초월적인 영원한 ‘동심’의 세계를 담은 린하이인의 작품은 성인과 아동의 경계 영역을 두루 관통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2. 여성, 삶의 성찰에서 오는 능동적 이미지

집이 虎坊橋에 있었는데 다양한 풍경이 가득한 이 거리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이는 사물마다 나로 하여금 늘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의 영혼은 그 어리디 어린 나이에 인간세상의 현실의 삶에 대한 회의, 동정, 불평, 감탄, 흥미 등의 여러 정서로 충만해 있었다.²⁶⁾

『在胡同裏長大』에 실려 있는 위의 글을 통해 린하이인의 사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세밀한 관찰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한 호기심은 글쓰기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어 간다.

『城南舊事』속 잉쓰 주변에는 늘 힘겹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여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글을 서술하는 잉쓰의 호기심어린 시선은 주로 이들에게 쏠려있다. 돌아오지 않는 남자와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사는

25) 조은숙, 앞의 책, 109쪽 참고.

26) 家住在虎坊橋，這是一條多姿多彩的大街，每天從早到晚所看見的事事物物，使我常常琢磨的人物和事情可太多了。我的心靈，在那小小的年紀裏，便充滿了對人世間現實生活的懷疑、同情、不平、感慨、興趣……種種的情緒。(林海音, 「虎坊橋」, 『在胡同裏長大』,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1, 4쪽)

惠安館의 미치광이 여인, 태어나자마자 치화문에 버려져 눈물을 달고 사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惠安館」, 핏덩이 자식을 떼어놓고 돈벌이를 위해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유모의 눈물이 담긴 「驢打滾兒」, 가난 때문에 팔려가 첩으로 살아야 했던 한 고운 여인의 이야기인 「蘭姨娘」, 이들 작품들에는 주로 당시의 가난한 하층민 여인들의 피눈물이 속속들이 배어있다.

「惠安館」에서 아버지 없이 사생아를 낳은 딸 슈전의 미래를 위해 그녀의 부모는 독한 마음을 먹고 손녀를 버린다. 이로 인해 결국 정신줄을 놓아버린 슈전과 「驢打滾兒」의 자신의 아이들이 아님에도 온 마음을 다해 뜨거운 사랑으로 남의 자식들을 돌보는 유모 송마를 통해 여인의 비참한 운명 속에서도 애끓는 모성애를 묘사하고 있다.

사실 「蘭姨娘」에서의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모친, 「驢打滾兒」에서 자식들을 잃은 유모 송마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며 배려해주는 모친의 모습,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급히 고향으로 돌아간 뒤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는 슈전의 모습은 이미 익숙한 전통적 여인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린하이인이 묘사한 여성들의 모습은 그저 구태의연하기만 한 것인가? 1998년 타이완의 한 여성단체가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남녀 성차별’의 내용이 보이고 남녀가 타이완 교과서에 출현하는 비중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초등학교 『國語』 제1책 제3과 「誰起得早」의 ‘엄마는 일찍 일어나 바빠 청소를 하고 아빠는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본다(媽媽早起勤打掃, 爸爸早起忙看報)’에 성차별적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 「誰起得早」는 린하이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쓴 예문이었다. 당시 이러한 젠더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커지자 린하이인은 굴욕감까지 느끼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엄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체조를 하고’(媽媽早起做早操)로 고치게 되었는데 결국 집안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²⁷⁾ 하지만 린하이인이 묘사한 가정의 모습이 이상적인 허구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이미지였다는 시각에서 보자면, 이를 단순히 린하이인의 전반적인 문학경향의 한계성이나 비판

27) 夏祖麗, 앞의 책, 351-353쪽.

의 대상으로 읽을 것인지는 숙고해볼 문제라고 본다.

린하이인 문학의 차별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蘭姨娘」에서의 란이냥은 중국의 구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첩 신분으로서 불행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 아니라, 린하이인이 창조해낸 이미지 속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 용기를 내서 청년과 떠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惠安館」에서의 슈전 역시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딸 뉴얼과 상봉하자마자 기차를 타고 남자를 직접 찾아 떠나는 능동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란이냥은 어려서부터 의지할 데 없이 모진 인생을 살아온 가난의 희생자였다.

날 가지고 그 남자 가족들이 다 상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몇 년을 더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전 제 젊은 날을 그집에다 물어 버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어디 의지할 데라곤 없이 막막한 신세라 집을 뛰쳐나오긴 했어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친척도 없고 수저우에 세 살배기 날 팔아버린 생모가 살고 있다던데 어느 거리에 사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저 그 집에 기름등이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를 비추던 게 기억나요. 오빠는 병들고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빠 병 때문에 날 팔아버린 거였어요!²⁸⁾

이렇게 란이냥은 눈물어린 눈으로 울음을 참아가며 억지웃음이라도 지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말을 이었다. 그녀가 처한 현실은 이처럼 가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린부인 말씀이, 미스 황이 열악한 환경에 맞서서 싸울 줄 아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라고 하시더군요.²⁹⁾

28) 他們一家人對付我一個人，我還有幾個五年好活！我不願把年經的日子埋在他們家。可是，四海茫茫，我出來了，又該怎麼樣呢？我又沒有親人，蘇州城裏倒有一個三歲就把我賣了的親娘，她住在哪條街上，我也記不得了呀！就記得那屋裏有一盞油燈，照着躺在床上的哥哥，他病了，我娘坐在床邊哭，應該就是爲了這病哥哥才把我賣的吧！（林海音，『蘭姨娘』，『城南舊事』，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2008，126쪽）

더센 아저씨의 칭찬에 란이냥은 위축되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 잉쯔는 처음에는 서로 관심조차 없었던 이 두 사람을 백중절에 등구경을 핑계로 만나게 해주고, 더센 아저씨는 란이냥에게 『입센희곡집: 인형의 집』을 잉쯔를 통해 건네주기도 한다. 급기야 베이징 대 대학생과 첩이었던 란이냥은 신분을 초월하여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게 된다.

또한 작가 린하이인은 전통적 가정의 일부다처제가 무엇인지도 모를 어린 잉쯔를, 부친과 란이냥의 애매한 관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모친을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꾸며서 의도적인 노력 끝에 란이냥이 집에서 떠날 수 있도록 청년과 연결시켜주는 능동적인 소녀로 묘사하고 있다.

처음 다른 사내의 첩인 란이냥의 불행에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자신의 집에 와서 살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잉쯔는 뜻하지 않게도 ‘란이냥의 흥은 곧 잉쯔 자신의 모친의悲哀 되는’³⁰⁾ 아이러니한 상황을 간파한다. 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두 여인 모두의 ‘흥’가 성립되는 해피엔딩을 위해 아이답지 않은 영악하기까지 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드디어 계획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惠安館」에서 잉쯔는 뉴얼의 아버지를 찾아 떠나려는 슈전 모녀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도 한다.

장신구함이 과연 옷 아래에 있었고 나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엄마가 새로 한 금팔찌가 안에 있었다! 심장이 살짝 뛰었다. 그 금팔찌를 꺼내기 전에 나도 모르게 창밖을 한 번 살펴보았다. 유리창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엿보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에는 내 그림자만 비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금팔찌를 꺼내는지, 또 어떻게 장신구함을 다시 옷 아래에 넣어 놓는지를 전부 다 보고 있었다. 서랍을 닫는데 손이 바르르 떨렸다. 금팔찌는 슈전이랑 뉴얼에게 여비에 쓰라고 줄 것이었다. 엄마 얘기로는, 금

29) 我聽林太太講起過，說密斯黃是一位很有志氣的，敢向惡劣環境反抗的女性！(林海音, 『蘭姨娘』, 앞의 책, 137쪽)

30) 錢虹, 「當代臺灣女性文學的發軔及其主題」, 『華東師範大學學報』, 1997年第4期, 80쪽.

두 냥이면 아주 아주 많은 돈이라서 텐진, 상하이, 일본까지 놀러 갔다 올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슈전과 뉴얼이 惠安館으로 스강 아저씨를 찾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 놓고 금팔찌를 내 팔에 찼다.³¹⁾

「爸爸的花兒落了」편은 형제 많은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급게 자란 해맑은 어린 소녀 잉쯔가 아버지의 이른 부재로 인해 겪게 될 불안한 미래와 책임을 어렴풋하게 예고해주고 있다.³²⁾ 준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어른이 되어야 했던 잉쯔의 미래는 비록 작품 속에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잉쯔의 눈에 묘사된 세계가 표면적으로는 눈부시도록 마냥 고운 빛깔이라면, 그 이면에 자리한 실제 현실의 세계는 독자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스치듯 지나쳐버리기 쉬운, 엄연히 칙칙한 회색 빛깔이다. 삶의 냉혹함과 비참함이 얇은 커튼 뒤로, 보려고 하면 금새 눈에 떨 수 있도록 지척의 거리 그 자리에 무겁게 뿌리내려져 있었다.

“잉쯔야, 가서 이 돈을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천 삼촌에게 부치고 오렴.” “아빠!” “겁낼 것 없단다, 잉쯔야. 이것저것 많이 배워두어야 나중에 엄마를 잘 도울 수 있지. 넌 우리 집 맏딸이잖니.” …… 나는 너무 무서웠지만 눈 딱 감고 해야만 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눈 딱 감고 하면 이겨낼 수 있을거야. “그래, 부딪혀 보는 거야,

31) 首飾匣果然在衣服底下壓着，我拿了出來打開，媽媽新打的那只金屬在裏面！我心有點兒跳，要拿的時候，不免向窗外看了一眼，玻璃窗外黑漆漆的，沒有人張望，但我可以照到自己的影子，我看見我怎樣拿出金鐸子，又怎樣把首飾匣放回衣服底下，推開了推屜，我的手是抖的。我要給秀貞她們做盤纏，媽媽說，二兩金子值好多好多錢，可以到天津，到上海，到日本玩一趟，那麼不是更可以够秀貞和妞兒到惠安館去找思康三叔嗎？這麼一想，我覺得很有理，便很放心地把金鐸子套在我的胳膊上面了。(林海音, 『惠安館』, 앞의 책, 63-64쪽)

32) 『城南舊事』 속 소설 가운데 『我們看海去』만이 유일하게 남자 도둑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만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남자 도둑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소녀의 고민에 맞추어져 있다.

부딪혀 보는 거야, 잉쯔야.”³³⁾

죽음을 앞둔 부친은 어린 잉쯔에게 자기 대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해질 것을 당부한다. 린하이인의 부친은 1931년 당시 29세의 린하이인의 모친 黃愛珍, 13세의 잉쯔, 11세의 秀英, 8세의 燕珠, 6세의 燕生, 5세의 燕瑛, 4세의 燕玢과 2세의 燕璋, 이 많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44세의 나이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³⁴⁾ 잉쯔의 모습은 장녀로서 12살에 부친을 잃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모친과 형제들을 돌보며 한 가정을 지탱해야 했던, 여성으로서 전통 남성 사회에서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린하이인 자신인 것이다.

린하이인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찬미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지는 데, 이러한 점은 대표적 여류 작가 중 한 명인 빙신 작품의 주제와도 얼핏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예교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규범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신격화시켰던 빙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린하이인 작품에 등장하는 일부 여성들은 비록 그 예교의 테두리 안에 있기는 해도 어느 순간 과감하게 예교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의외의 적극성을 갖추고 있다. 이 여성들은 기존 규범 안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드러나는 어머니의 역할과 이미지는 전통적 어머니상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상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⁵⁾

전통 남성사회에서의 가장 역할은 「驢打滾兒」의 유모 송마 역시 담당하고 있다. 글을 모르는 송마는 그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들을 데려와도 좋다는

33) “英子，去把這些錢寄給在日本讀書的陳叔叔。”“爸爸!”“不要怕，英子，妳要學做許多事，將來好幫著妳媽媽，妳最大。”……我雖然很害怕，但是也得硬著頭皮去。這是爸爸說的，無論甚麼困難的事，只要硬著頭皮去做，就闖過去了。“闖練，闖練，英子。”(林海音，『爸爸的花兒落了』，『城南舊事』，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2008，175쪽)

34) 夏祖麗，「林海音大事年表」， 앞의 책， 417쪽 참고; 「林海音大事年表」，舒乙，傅光明， 앞의 책， 282쪽 참고.

35) 傅光明，「林海音的文學世界」，舒乙，傅光明 主編， 앞의 책， 212-213쪽 참고.

잉쯔 부모의 허락에 들뜬 마음으로 잉쯔에게 집으로 보낼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다.

잉쯔야, 네가 써주렴. 가족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어린 환즈는 소 먹이러 들에 나갈 때 조심해야 해요, 물놀이도 말게 하고요. 환즈에게 줄 신 두 켤레와 저고리와 바지 한 벌을 장만해 놓았어요. 야터우즈가 있는 데에다 때 마다 돈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하단 얘기도 많이 하시구요. 가져간 돈이 전부 해서 얼추 이백 위안이니, 집 뒤 언덕의 조그만 땅을 되찾아 오세요. 늘상 남의 땅에 농사나 짓진 말아야죠. 그리고 전 잘 있어요. 그저 애들 걱정뿐이지요. 다음 달에 올 때 환즈를 데리고 오세요. 환즈를 데려오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³⁶⁾

하지만 가장 역할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무능력한 남편은 아이들을 지켜 주지 못한다. 그리움을 참으며 오랜 시간을 견뎌온 끝에, 마침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될 기쁨에 차 있던 송마는 절망에 사로잡힌다.

송마는 얼굴을 가린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 있었다. ……
“송마네 환즈가 이미 죽었다단다.” 엄마가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내게 말하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말했다. “에휴! 죽은 지 벌써 한두 해가 지났다는데, 이제와서야 말을 하다니…….” 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³⁷⁾

사실 송마는 『城南舊事』의 다섯 개 테마 속에서 주인공 잉쯔를 제외하고

36) “你就寫呀，家裏大小可平安？小栓子到野地裏放牛要小心，別盡顧得下水裏玩。我給做好了兩雙鞋一套褲褂。丫頭子那兒別忘了到時候送錢去！給人家多道乏。拿回去的錢前後快二百塊了，后坡的二分地該贖就贖回來，省得老種人家的地。還有，我這兒倒是平安，就是惦記着孩子，趕下個月要來的時候，把栓子帶來我瞅瞅也安心。還有……” (林海音, 『驢打滾兒』, 『城南舊事』,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152쪽)

37) 宋媽蒙着臉哭，不敢出聲兒。……“宋媽的小栓子已經死了。”媽媽沙着嗓子對我說，她又轉向爸爸，“唉！已經死了一兩年，到現在才說出來……爸爸也搖頭嘆息着，沒有話可說。(林海音, 『驢打滾兒』, 앞의 책, 155-156쪽)

는 잉쯔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린하이인이 공들여 묘사한, 잉쯔의 작품에서 여성의식이 가장 강하게 표출된 이미지³⁸⁾이기도 하다. 「驢打滾兒」에서 송마는 현실의 처참한 고통을 안으로 삭히고 고향으로 돌아가 망가진 삶을 다시 꾸려나가 보고자 한다. 린하이인의 전기에서는 이와는 다소 다른데, 린하이인의 부친의 죽음 이후 당시 어려워진 살림 때문에 유모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자 린하이인의 모친은 송마를 텐진에 사는 벗 수선생의 딸네 집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실존인물 송마는 잉쯔네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이들 일가의 안위를 진심으로 염려해주는³⁹⁾ 정이 넘치는 여성이다.

5·4시기 이후 여성을 다룬 대부분의 작품들은 봉건유리도덕의 폐해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전통적 여성들의 비극적 모습을 그리며 이들을 주로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했다. 반면, 린하이인의 작품 속 일부 여성들의 모습은 이와는 차별화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졌는데 이러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일찍이 젊은 시절의 내가 스스로 혁명의 사상이 천시한다고 여겼던 ‘현모양처’라는 이 단어에, 린하이인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⁴⁰⁾

이처럼 린하이인의 딸이자 그녀의 전기를 쓴 샤주리 夏祖麗가 내린 가가이에서 보아온 모친인 작가 린하이인에 대한 평가는, 린하이인 작품의 여성 이미지를 가장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38) 夏祖麗, 앞의 책, 213쪽.

39) 宋媽는 타이완 가정에서 일하는 베이징인 고용인으로, 이들 베이징 고용인들은 타이완인들이 베이징 생활에 융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교량, 매개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늘 북방의 풍습, 민간속담전설, 방언, 후통 거리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타이완 가정에 전해주었다. (張光正, 「老北京的“番薯仔”」, 舒乙, 傅光明 主編, 앞의 책, 66쪽)

40) 曾經被我年輕時代自以為革命的思想所鄙夷的“賢妻良母”這個詞兒, 已由林海音賦予了全新的意義。(郝海洪, 「林海音“京味”敘事策略」, 『文化研究』, 2006. 8, 171쪽)

Ⅲ. 트랜스 양안의 집단 기억 서사

린하이인이 ‘베이징화된 타이완 작가’인지, 아니면 ‘타이완화된 베이징 작가’인지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녀의 작가적 정체성뿐 아니라 문학사적 위치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다. 이전 시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힘겹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다. 그에 비해 린하이인의 삶은 부친을 어린 나이에 잃고 일찍부터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순탄치만은 않았던 개인적인 가족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몸담았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그런대로 평탄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유로 린하이인의 작품에는 대체로 정치적 성향을 띤 내용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녀의 작품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과 정감이 구석구석 스며있으며 여성과 아동에의 관심이 곳곳에 알알이 박혀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정치적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고 경계의 벽을 쌓지 않는, 바로 그녀가 창간한 잡지명 그대로 ‘순문학’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50년대 타이완 문단은 당시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인 반공을 내용으로 한 문학작품의 창작, 그리고 정치 성향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노스텔지어 문학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린하이인의 작품은 타이완인의 정서와 대륙인의 정서가 구분 없이 잘 어우러져 타이완인과 대륙인, 이들 모두의 향수를 자극한다.

우선 타이완 문학사에서 언급된 린하이인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2002년 베이징의 時事出版社에서 출판한 구지탕 古繼堂 주편의 『簡明臺灣文學史』에서는 13장에서 한 章을 모두 할애하여 린하이인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장의 제목은 ‘타이완 여성문학의 개창자’로, 평생에 걸친 창작활동과 린하이인 소설의 주제 내용 및 예술기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兩岸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⁴¹⁾

또한, 왕진민 王晉民이 쓴 『臺灣當代文學史』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장의 편폭으로 린하이인의 작품을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부젠주 福建出的 『臺

41) 王勛鴻, 「掃描臺灣文學在大陸當代文學史上的定位曲線—以林海音人文為例」, 『社會科學家』, 2006年 9月, 第5期, 總第121期, 175쪽.

『灣新文學概觀』, 라오닝추 遼寧出의 『現代臺灣文學史』에서도 한 짚을 들여서 린하이인의 작품 및 풍격을 소개했는데 그녀의 작품 가운데 주로 『城南舊事』에 포커스를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졌다.⁴²⁾

타이완 문단의 평가가 이와 같다면, 대륙에서도 역시 『北京文學史』와 『北京現代文學史』에서 린하이인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⁴³⁾ 1994년 北京燕山出版社에서 출판한 『京味文學叢書』에는 14명 京味文學 작가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들 가운데 린하이인은 유일한 타이완 거주자이자, 유일한 여성 작가였다. 여기에 실린 그녀의 작품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京味적 색채가 농후한 소설과 산문들이다.⁴⁴⁾ 2000년에는 베이징 중국현대문학관 주최로 ‘린하이인 작품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고 타이완에서는 이보다 2년 뒤인 2002년에 린하이인 토론회가 열려 학계에 반향을 크게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현대문학계에서의 린하이인의 족적은 작품 창작활동 못지않게, 잡지 편집과 출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 역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60년대 타이완 문화 시장에서 문학잡지의 생명력은 오래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린하이인의 『純文學月刊』 역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워 결국 62기를 마지막으로 5년만에 정간되었다. 하지만 『순문학월간』은 짧은 이 기간 동안 타이완 문단에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고 중국 근대작가들의 작품 소개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중국 대륙의 30년대 작가 소개는 타이완에서 아직은 금기시되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하이인은 독자들이 5·4운동 이후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문학월간』 제2기부터 「中國近代作家與作品」 특별란을 마련했다. 2년 동안 여기를 통해 朱自淸, 許地山, 沈從文, 夏丏尊, 凌叔華, 羅淑, 朱湘, 周作人, 俞平伯, 廬隱, 郁達夫, 徐志摩, 戴望舒, 孫伏園, 宋春舫 등 작가 18명의 49편의 작품을 실었다. 라오서 老舍 사후, 린하이인은 랑스치우 梁實秋에게 『憶

42) 應鳳凰, 「五十年代臺灣女性作家-兼比較海峽兩岸文學史書的不同注釋觀點」, 『社會科學戰線』, 1994年 3期, 243쪽, 245쪽.

43) 北塔, 「在虛構與紀實之間-再讀『城南舊事』」, 舒乙, 傅光明 主編, 앞의 책, 243쪽.

44) 文浩若, 〈鄉情悠悠〉, 舒乙, 傅光明 主編, 앞의 책, 51쪽.

老舍』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라오서의 명저 『月牙兒』을 1967년 9월 『순문학월간』에 실어 라오서를 추도한 바 있다.⁴⁵⁾ 이처럼 정치적 위협의 위험을 무릅쓰고 30년대 대표적 대륙 작가들의 문학을 타이완에 소개한 린하이인의 당시 결코 쉽지 않았을 결단과 노력은, 분명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초래한 ‘兩岸 콤플렉스’에 스스로를 구속하고 가두거나 하지 않고 兩岸문학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린하이인의 가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린하이인은 타이완 문학과 대륙 문학을 경계짓지 않는 시각에서 중국이라는 지역에 사는 모든 중국 민족과 중국의 삶과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사유하며 창작한 작가이다. 또한 5·4시기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신만의 언어와 색깔로 중국적 풍격을 개성 있게 발전시킨 리얼리즘 계열의 탁월한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린하이인의 대표작인 『城南舊事』를 단순히 옛 베이징인들의 추억거리를 곱씹어 음미한 작품으로 한정짓지 않고 ‘민족의 집단적 추억의 기록’⁴⁶⁾이라고 인식한 치방웬 齊邦媛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구지탕 역시 ‘린하이인을 중국의 남방과 북방 두 지역의 향토풍정을 종합적으로 흡수한 완전한 중국인’이라고 평가하며 ‘타이완인이자 베이징인’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중국의 향토와 향수를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인식⁴⁷⁾하였는데, 이는 모두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 45) 傅光明, 『林海音: 城南依稀夢尋』, 鄭州: 大象出版社, 2002, 76-77쪽 참고; 楊月, 「林海音與“純文學”」, 『新文學史料』, 2002年 2期, 18쪽 참고.
 46) 黃發有, 「林海音的女兒情結與文化鄉愁」, 『齊魯學刊』, 1999年第3期 46쪽; 齊邦媛, 『千年之淚』, 爾雅出版社, 1990년판, 30쪽 재인용.
 47) 應鳳凰, 「五十年代臺灣女性作家-兼比較海峽兩岸文學史書的不同注釋觀點」, 『社會科學戰線』, 1994年 3期, 243쪽, 245쪽 참고; 古繼堂, 『臺灣小說發展史』, 瀋陽市春風文藝出版社, 1989년 11월 초판, 138쪽.

IV.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접하는 위치와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쉽게도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성작가 린하이인과 그녀의 대표작 『城南舊事』에 실린 작품들을 분석하고 타이완과 대륙 양안이 공유하는 서사 기억으로서의 린하이인 문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최근 중국정부에서는 중국내 타이완의 역사적 史跡地的 발굴과 보존을 위한 5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린하이인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베이징의 집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양안 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국정부의 우호적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동시에, 아울러 양안 문학에 있어서 린하이인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타이완의 평론가 예스타오 葉石濤는 린하이인이 ‘한쪽 눈을 감고서 고집스럽게 인성의 밝은 일면은 보고 싶어했으나 그 타락의 어두운 심연은 의식적으로 소홀히 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런 도피와 취사선택은 그녀의 작품에서 허위적 평정과 부드러움을 드러내게 했다’⁴⁸⁾라고 린하이인 문학의 한계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린하이인의 작품 가운데 본고에서 살펴본 『城南舊事』로 한정하여 논하자면 대체적으로 삶의 밝은 일면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린하이인은 이와 더불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삶의 어두운 심연 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정정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 린하이인의 글쓰기 방식은 강렬한 클라이맥스, 혹은 놀라운 반전이나 독특한 플롯이나 특이한 인물 캐릭터를 추구하지 않으며, 결코 작위적이거나 하지 않은 담담한 톤의 서사 속에서 무심하게 나누는 말 혹은 서술하는 이야기 이면에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읽기를 마치고 난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 린하이인의 삶을 관조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울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게 된다. 이것은 바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린하이인의 문학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작가의 저력이기도 한 것이다.

48) 周艷麗, 「用悲天憫人的襟懷察中國婦女之苦痛-淺析臺灣女作家林海音小說主題的意蘊」, 『殷都學刊』, 2003年 4期, 98쪽.

또한, 린하이인을 둘러싼 ‘兩岸’ 콤플렉스라는 화두의 문제의식은 양안 문제의 현 상황에 있어서도 유효한 문제이며, 이 방면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린하이인 문학은 이제 좀 더 소개 연구되어 새로운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그 가치와 의미의 비중을 재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아동, 여성, 베이징, 타이완, 兩岸 콤플렉스

❖ 참고 문헌

- 林海音, 『城南舊事』,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8.
- _____, 『林海音作品菁華集: 城南舊事』, 北京: 中國畫報出版社, 2010.
- _____, 『城南舊事』,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1.
- _____, 『在胡同裏長大』,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1.
- 夏祖麗, 『從城南走來-林海音傳』,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3.
- 傅光明, 『林海音: 城南依稀夢尋』, 鄭州: 大象出版社, 2002.
- 舒乙, 傅光明 主編, 『林海音研究論文集』, 北京: 臺海出版社, 2001.
- _____, 『大愛無邊』, 桂林: 漓江出版社, 2004.
- 陳大為, 「京畿攻略-中國當代詩歌版圖上的北京」, 『思與言』 第45卷 第1期, 臺北: 2007.
- 章景風, 「清末民初兒童文學作品翻譯與中國現代兒童文學」, 『安慶師範學院學報』, 2011年 4月, 第30卷 第4期.
- 曹普軍, 「光明的故事-林海音『城南舊事』解讀」, 『世界華文文學論壇』, 2000. 3.
- 周莉, 「在離別中成長-再讀『城南舊事』」, 『世界華文文學論壇』, 2009. 3.
- 錢虹, 「當代臺灣女性文學的發軔及其主題」, 『華東師範大學學報』, 1997年

第4期.

- 郝海洪, 「林海音“京味”敘事策略」, 『文化研究』, 2006. 8.
- 王勛鴻, 「掃描臺灣文學在大陸當代文學史上的定位曲線-以林海音人文爲例」, 『社會科學家』, 2006年 9月, 第5期, 總第121期.
- 應鳳凰, 「五十年代臺灣女性作家-兼比較海峽兩岸文學史書的不同注釋觀點」, 『社會科學戰線』, 1994年 3期.
- 楊月, 「林海音與“純文學”」, 『新文學史料』, 2002年 2期.
- 周艷麗, 「用悲天憫人的襟懷察中國婦女之苦痛-淺析臺灣女作家林海音小說主題的意蘊」, 『殷都學刊』, 2003年 4期.
- 黃發有, 「林海音的女兒情結與文化鄉愁」, 『齊魯學刊』, 1999年 第3期.
- 王泉根, 「“五四”與中國兒童文學的現代轉型」,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7年 1期.
- 방철환 역, 『북경이야기(1, 2)』, 서울: 배틀북출판사, 2001.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9.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서울: 창비, 2009.
- 김자연, 『아동문학의 이해와 창작의 실제』, 서울: 청동거울, 2003.
- 김복순, 『페미니즘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서울: 소명출판, 2005.

❖ ABSTRACT

A Study on the Linhaiyin(林海音)'s
Chengnanjiushi(城南舊事)

Sujin Kim

A Chinese female writer *Linhaiyin*(林海音) and *Chengnanjiushi*(城南舊事), her representative work, have never been studied in Korea before although she and her literary works stand high and are well known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Chinese literature. Thus, in this paper, I analyze her and her novels included in *Chengnanjiushi* and study their literary value and meaning. To analyze and study them, I mainly consider novels *Anhuiguan*, *Womenkanhaiqu*, *Lanyiniang*, *Lúdagunr*, and *Babadehuarluole* included in *Chengnanjiushi*. Firstly, I look into her attitude and mode to observe children and women's life as a writer. Such attitude and mode succeeded to the spirit of the '5.4 literature'. Secondly, I evaluate Linhaiyin's 'Both sides complex' and its valu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From this evaluation, the meaning of Linhaiyin's literature is highlighted. She was free from 'Both sides complex' occurred due to the circumstance of the times and played a role of a bridge so as not to break off literature of China and Taiwan. When her and her works are evaluated,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The characteristic of her writing mode is that she did not seek a compelling climax, a surprising reversal, or an exclusive plot or character in her works. In her works, plain description or unwitting conversation and story often imply deep meanings. Thus, at unexpected moment after reading her novels, readers truly listen to deep resonance for her attitude and mode to observe people's life. This is exactly her potential energy that makes readers sink into her literary

world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Keywords

Child, Woman, Peking, Taiwan, Both sides Complex

논문접수일: 2012. 04. 30

심사완료일: 2012. 05. 21

게재확정일: 2012. 05. 25